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 내 영혼의 빛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영접송 / 더 연합합니다	다같이
대표기도		김태동
*성경봉독	요 14:12-24	최지연
말씀	순종과 사랑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나의 하나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길 힘과
두렵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길 힘과
두렵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순종과 사랑 (요 14:12-24)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난 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좋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과 ‘사랑’을 특별히 연관짓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주님이 요약하신 구약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사랑 없이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 언약, 계약적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에 있는 정신은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 행동을 바꿉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부끄러움도, 수고도 감수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순종’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만큼 친근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사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2천년이라는 시간적 갭과, 수만 마일이라는 공간적, 문화적 갭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의 카리스마 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깊이 있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 분께 삶을 내어 드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귄을 하려면 ‘말씀과 묵상’의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감과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예수님의 행적과 그 속 마음을 깊이 읽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다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그 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된 예수님과 사귄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대하신 태도나 방법이 깨달아졌으면, 오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내게도 반드시 그렇게 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내 삶에 접목하는 근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기록이 아니라, 신자들이 삶에서 살아 내도록 기록된 글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삶이 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 프로젝트를 선포를 진행하려 합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뽑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분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예수님의 평온함’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주도하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조급함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주께서 빈 들에 가지자 여러 고을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보러 나왔는데,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뭔가 먹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제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들을 마을로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 한 어린이가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져오자 주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줬는데 놀라운 배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하셨을까요? 이 평온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수님은 광풍이 바다를 삼키려 할 때도 배 뒤편에서 베게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파도치는 바다에서 배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기만 하실 거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평온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중에 인생의 폭풍우 앞에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곁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해지면 주께서 깨어나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산책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갈 때조차 고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면서도 평안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비록 육체적으로는 극한의 고통으로 떨림이 있으셨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온유하면서 대범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을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런 든든한 목자를 둔 양입니다. 예수님의 평온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으셨기에 그분의 위로는 우리를 살리는 새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온함에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새 힘이 있습니다! 위로함이 있습니다! 이 주님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최근 느낀 경험들을 나누어 보세요.
2. 예수님의 평온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평온함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3. 나도 예수님처럼 환경을 뛰어 넘는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느낀 바를 나누어 보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양육 훈련 동반자 모집

문의 : 이순희 집사 (soonhoe.lee@gmail.com)

중보기도학교

일시 : 5월 6일 13일 20일 27일(토) 4주간, 오후 2시, 2층 청년부 예배실

2023년 드림키즈 써머캠프 교사 지원

기간 : 7월 10~28일 (3주간)
문의 :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중보기도학교

일시 : 20일 27일(토), 오후 2시, 2층 청년부 예배실

음악부 광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함께 믿음으로 섬길 찬양대 지휘자 찾습니다.
접수기간 : 5/1~5/31
자격요건 : 정규 음대 졸업한 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세례 받으신 분, 지휘 경험 있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문의 : akpc-music@akpc.org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오은비)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정호)



청년부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